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3주일
제33권 20호(다해) 2013.4.14

[묵상]



티베리아스 호숫가에 나타나신 예수님<두치오, 14c>

참으로 답답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발현하셨는데도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다들 따라 나서네요.

예수님께서 시키신 새로운 일,

사람 낚는 일이 아니라

옛날 일을 하겠다는군요.

끝가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도망간 곳까지 찾아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나눈 제자들

이제 다시는 옛날 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이미 만나버린 이들이

예수님을 미처 만나지 못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저희들은

그 이전의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桓-

martin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짝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계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중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송봉규 요셉 & 송공량 카타리나, 정재섭 요앙
특전미사	(생)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세준 요셉, 김현숙 벨라멧다
주 일 낮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권복남 모니카, 정학순 발바라, 김금점 모니카, 이경용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윤춘의 스킨라스티카, 송기인 요셉 & 김재순 아가다, 최윤정, 김풍길 바오로, 박준구 요한, 엄익찬 안토니오, 주용범 아브라함, 이만복 로사, 신태동 요아킴
	(생)유정복 베네딕도, 이윤조 클라라, 이행자 리드비나, 김정웅 요한 & 김춘자 막달레나, 김기준 안젤라, 이혜숙 요세피나 & 이형삼 요셉, 김영덕 다니엘 & 박현주 카타리나 가정, 이규상 클레멘스 & 이베로니카 가정, 신형민 유스티노 & 박성경 비비아나, 장인석 요셉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5,27-32,40-41

화답송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습니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저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제 2독서 요한 묵시록(Revelation) 5,11-14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복 음 요한(John) 21,1-19

영성체송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69	170	162
봉헌	주 찬양합니다	268	272
성체	주님의 마음으로	306	309
파견	Prince of Peace	164	167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의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교회의 사명: 하느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하느님 말씀, 교회 사명의 원천

첫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그들의 신앙이 민족들에 따라 서로
다른 특정한 문화의 관습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고, 오
히려 모든 이에게 똑같이 관련된 진리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
각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오로 성인은 그의 삶을 통하여 우
리에게 그리스도교 사명의 의미와 그 근본적인 보편성을 보여
줍니다. 사도행전에서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에 대해 전해 주
는 일화를 생각해 봅시다(사도 17,16-34 참조). 이방인들의
사도는, 모든 사람이 비록 분명치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지
각하고 있는, 그 알려져 있으면서도 알려져 있지 않은 하느님
의 신비가 역사 안에서 참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여러 문화의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
게 선포하려고 합니다.”(사도 17,23). 실상, 그리스도교 선포의
새로운 점은 그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교
선포의 새로운 점은 개념이 아니라 사실에,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 주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말씀과 하느님 나라

93). 따라서 선교는 교회의 삶에 선택적인 것 또는 덧붙여진
것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
리스도께 결합시키시어 그분의 사명에 참여하고 -“아버지께
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온
삶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
가 우리를 형제들에게로 가게 하십니다. 비추시고, 정화하시고,
희개시키시는 것은 말씀이시고 우리는 그 종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설교하셨던 하느님 나라가 오도
록 말씀을 선포하는 것의 절박함과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교부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
처럼 말씀 선포의 내용은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마르 1,14-
15 참조) 더 깊이 인식하도록 합니다.

오리게네스의 의미 깊은 표현을 빌리면, 하느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십니다.(autobasileia). 주님께서는 모든 시대
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빛이 가정, 학교, 문화, 노동, 여가와 사회생활의 다른 면들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비추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를 압니다. <◆계속>

발현하신 예수님 알아보기

그리스도교 영성생활에는 '수덕생활'과 '신비생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덕생활의 수덕은 닦을 '수(修)'와 덕 '덕(德)'으로 이루어져 글자 그대로 '덕을 닦는다' 즉 '덕행에 정진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인 그리스말에는 '운동선수가 반복해서 훈련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단어를 그리스도교에서 덕행을 수련하는 일에 적용하여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은 개인적인 일들을 참아가며 매일 열심히 반복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완덕을 이루어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나태해지는 자신을 극복하고 매일 열심히 덕을 닦아야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신비생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앞에 나타나신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2001년 봄 BBC 방송국에서는 '신의 아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발표하면서 예수님의 얼굴로 추정하는 그림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1세기경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골 자료를 수집하여 평균값으로 작성한 얼굴은 예술가들의 상상에 의해 그려진 유럽사람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모습이 실제 예수님의 얼굴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얼굴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들이 전해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 이야기에 흥미로운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발현하신 예수님을 얼른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슬퍼하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발현하신 예수님을 정원지기로 여기다가,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요한 20,11-18 참조) 엠마오

로 가던 제자들도 한나절을 함께 걷던 분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다가, 저녁 식탁에서 빵을 들어 찬미를 드리신 다음 때어 나누어 주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루카 24,13-35 참조) 오늘 복음에서도 제자들은 물가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다가,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뒤늦게나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시점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친숙한 시간의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유하는 기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사도들은 유다 종교지도자들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퍼뜨림으로써 예수님과 추억을 잊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복하여 실천하는 수덕생활을 통하여 예수님과 공유하는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총으로 신비생활에 참여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나를 바라보다

자기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마음을 말하곤 합니다. 자기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마음에 대해 떠들진 못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것이라 해도,
정말 두려운 건 함부로 마음에 대해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도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박희자 마리아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권순길 체칠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김교복 레오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은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여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파나마 선교를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파나마에서 선교사목하시는 김무웅 신부님께서 선교를
위한 모금을 하러 오셨습니다. 13일 토요일 미사를 포
함해서 오늘 주일미사(아침미사, 학생미사, 낮미사)에 참
례한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요셉회 특강

- 일시 : 4월21일(주일) 오후 1시 강당
- 내용 : 미국 총기문제 안전관리
- 강사 : 송종두 요한
- 문의 : 요셉회장 김대우 비오 ☎(310)920-7647

◆ 신영제자 첫 고해성사

- 일시 : 4월25일(목) 오후 7시30분 미사후
- 대상 : 지난 부활대축일에 세례성사를 받으신분들

◆ 본당 양업회 vs 대건회 친선 탁구대회

- 일시 : 4월28일(주일) 오후 3시30분, 강당
- 팀구성 : 양업회 7명 + 이장환 신부님(8명)

대건회 7명 + 이성주 신부님(8명)

- 경기방식 : 단식 8게임, 복식 4게임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 남가주 M.E. 제12회 골프찬치

- 일시 : 5월4일(토) 오후 1시, 샷건 플레이
- 장소 : 웨스트리지 골프클럽, 라하브라
- 대상 : ME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 참가비 : \$100(점심과 저녁식사, 푸짐한 상품)
- 신청 : 본당 ME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마오로 &
정병옥 올리아 ☎(310)780-9055

◆ 본당 웹사이트 www.103skcc.org 광고 접수중

- 본당 홈페이지 교우업소록에 게재할 홈페이지업체의 광고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와함께 홈페이지 불편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홍보분과 103skcc@gmail.com

◆ 2013 FIAT장학금 프로그램 신청

- 신청마감 : 5월31일
- 대상 : 북미주거주 한인가톨릭학생(12학년, 대학생, 대학원생)
- 본당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제출
- 문의 : fiat@fiat.org ☎(714)702-9830

◆ 한국외방선교회 멕시코 선교지 체험 참가자 모집

- 일정 : 7월16일(화)~23일(화) * 장소 : 멕시코 캄페체
- 지도 : 나영호 베드로 신부(한국외방선교회후원국장)
- 현지사목 : 최강 스테파노 신부(멕시코 지부)
- 참가비 : \$1,250(왕복항공료 + 현지경비 포함)
- 주관 : 한국외방선교회 한국본부
- 문의 : 오영섭 스테파노 백십위성당 후원회장 / 동후원회
미주재단 사무차장 ☎(310)922-1502

◆ 친교자리 봉사 담당

- 4월14일(주일) : 토런스 서 3반(비빔밥 \$3)
* 주일학교(K. 1학년 카레라이스)
- 4월21일(주일) : P.V. 3/4반(오징어탕뎀 \$3)
* 주일학교(2학년 햄&치즈 케사디아)

지나주 우리들의정성

교무금	강숙경	강운철	김관기	김기정	김병학	김선제	김영길	
	김영길	김옥보	김원모	김재영	김재희	김종렬	김주량	
	김학겸	나경흠	노혜숙	모은기	민기남	박씨나	박인식	
	박정희	박현주	방정복	변혜경	석순영	성필영	신경훈	
	엄세중	엄지선	오명섭	오일순	원건희	윤석구	윤희동	
	이귀분	이근모	이명자	이미경	이복임	이상곤	이상석	
	이상철	이석진	이영희	이용무	이인두	이일랑	임연조	
	장수영	장영우	전정일	전정자	정규숙	정남형	주대중	
	주용순	최미열	최지영	최현찬	홍선자	황인중	황지영	
	황학수	영희가보라	합계 : \$6,175					
주일미사헌금: \$2,845							2차헌금 : \$931	
성전헌금	강숙경	강운철	김관기	김기정	김병학	김선제	김영길	
	김옥보	김원모	김재희	김주량	나경흠	노혜숙	모은기	
	민기남	박씨나	박인식	박정희	박현주	방정복	변혜경	
	석순영	성필영	신경훈	엄세중	원건희	윤희동	이귀분	
	이근모	이명자	이복임	이상곤	이상석	이상철	이석진	
	이영희	이용무	이일랑	장영우	전정일	정규숙	주대중	
	주용순	최미열	최지영	최현찬	황인중	황지영	영희가보라	
	영희가보라							
	한남체인 도네이션 : \$320							
	합계 : \$3,625							
감사헌금 : 탁은선							의명(노인아파트)	사순애금 추가분 : \$294

공지사항

◆ 전진반 부모님과 함께 영화관람

- 일시 : 4월21일 학생미사후 오전 10시30분~11시30분
- 대상 : 10학년과 전진반 학부모님 필히 참석하세요.
- 제목 : '영원과 하루'

◆ 첫영성체 교리반/부모님 모임

- 일시 : 4월28일(주일) : 오전 10시30분~11시30분
- 장소 : 2학년교실(성당2층)
- 대상 : 2학년학생과 부모님, 그의 첫영성체교리학생과 부모님
- 비용 : \$20
- 첫영성체 예식 : 6월2일(주일) 낮 11시 미사중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 교무주임 ☎(310)780-8895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시 : 6월28일(금)~30일(주일)
- 장소 : 테미쿨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3학년~12학년(선착순 60명)
- 참가비 : \$50(5월26일 마감, 6월2일부터 \$70, no refund)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코디 ☎(310)709-3343

◆ 고등부(10학년) 견진성사

- 날짜 : 5월18일(토) 오전 10시
- 리허설 : 5월10일(금) 오후 7시30분
- 참회예절 : 5월17일 오후 7시
- 장소 : 성 마가렛 매리 본당
- 신청마감 : 오늘 주일(14일)까지(신청비 : \$30)
- 문의 : 빈센트 신 견진교리 교사 ☎(310)744-5878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참가비 : \$190(5월19일 마감, 5월26일부터 \$250)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남가주 소식

◆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인 유해 공경예식

- 일시 : 4월19일(금) 오후 7시30분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주임신부 김해원 가브리엘)
- 문의 : 프란치스코성당 사무실 ☎(310)324-8159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 후원을 위한 '함께 삶의 기쁨'

- 미사 : 4월20일(셋째토요일) 오전 11시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1137 Arapahoe St. + 올림픽)
- 점심나누기 : 낮 12시(구 1일 찾집)
- 문의 : ☎(213)820-6535 김윤희 소화테레사 수녀

◆ 사우스베이 교회대향 축구대회

- 일시 : 4월27일(토) 오전 8시, 콜럼비아 리저널파크
- 참가비 : \$300
- 문의 : 김호성 총무 ☎(310)323-2725

소공동체 4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4/20(토) 오전 7시 엠마오대체
	2	김찬구 요한 701-6343	유선식 필립보 213-718-9262 4/13(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진경 클라라 592-4739 4/19(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박인식 토마스 989-0366 4/14(주일) 오후 5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이철우 야고보 533-8478 4/12(금) 오후 6시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이기숙 엘리사벳 650-1515 4/19(금)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엄영숙 마리아 974-2857 4/19(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희자 마리아 213-718-9262 4/11(목) 오전 11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이남현 막시모 424-4000-4228 4/21(주일)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4/13(토) 팝스프링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주영애 켈마 818-640-3656 4/13(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유현화 리디아 541-4305 4/12(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김정엽 미카엘 541-6347 4/12(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유석영 레오 213-369-0687 4/12(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녜스 617-3568	도영옥 수산나 617-3568 4/9(화) 오전 10시30분 성당

이번 주 단체 모임

제 단체 모임의 날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2013년 장애인의 날 담화문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1코린 13,8)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 제33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이하여 장애인 여러분과 가족들, 그리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나 '인권'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복지나 인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차별이나 소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부 본당에만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으며,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은 장애아부 주일학교가 있는 본당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한 미사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선 본당에서는 본당에 장애인들이 많지 않은데, 그분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그만큼 장애인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약 1,449,496명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2,148,686명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2,683,477명으로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1,233,98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적인 것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서는 목자의 모습처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찾아나서야 합니다. 어찌면 우리 교회가 장애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장애인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순 시기를 마치고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교회는 신앙의 해를 보내고 있으며, 새로운 교황님도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교황님께서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로 정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번 성목요일에 소년원을 방문하여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소년원생들의 발을 씻겨주었는데, 그중에는 여자들과 이슬람 신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황님은 “주님은 가장 높은 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나를 가르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용태 신부 /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교구장 대리

☞ 길을 찾는그대에게

사도신경에 보면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육체는 죄의 근원이며 영혼만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육신은 없어지고 영혼만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요?

-오랫동안 서양에서는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고 하등한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영원히 산다는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그와 달리 그리스도교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한 인격을 이루며, 육신도 구원의 대상임을 가르칩니다. 육신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전제합니다. 우리도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1서 15장에서 육신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모든이는 썩어 없어질 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썩지 않는 몸,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

다. 육신의 부활은 또한 '새 하늘 새 땅'으로 묘사되는, 예수님이 가져올 구원의 우주적인 차원을 뜻합니다. 우리의 몸은 다른 피조물과의 연결 고리이며, 인간 몸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 또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락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로마 8, 19~20)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고 그 몸을 받아 모신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성체성사는 바로 육신의 부활로 표현되는 우주적 차원의 구원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권순호 신부 / 부산교구 남산성당 부주임